

## 淳昌趙氏 世居之鄉碑 建立에 대한 顛末을 보고합니다.

대중회 회장 趙 德 善

槐山 宗親會에서는 1995. 1. 8. 임시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淳昌趙氏 世居之鄉碑를 철차사 입구에 건립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잇가 1,000만원을 호가하는 단양산 자연석은 26세손 행정과 孝善이 회사하기로하고 건립비 1,735만원은 전액 협찬으로 충당하며 오는 4월 1일 철차사제례날 제막식을 거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중대한 宗事는 사전에 충분한 토의 과정을 거치는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급작이 일을 벌려 놓아 죄송한 마음에서 우선 그 배경을 설명하여 종친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미 宗報 제 5 호 (94. 6. 15) "소중한 우리의 뿌리를 잘 가꾸어 빛나게 하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외되어온 우리의 뿌리를 복돋다 선조의 위업과 전통을 되살려 안으로는 후손을 가슴마다 문중의 긍지와 조상을 숭상하는 마음을 깊이 심어주고 밖으로는 잘못 전해오는 우리의 뿌리를 올바르게 인식 시키는일이 최대의 과제이며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써지리케 느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조들의 행적을 一目瞭然하고 알기쉽게 정립해서 일이 집집마다 널리 뿌리를 재인식시키는 큰 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유적비를 건립하여야 한다고 평소 생각하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 한에서 지난 1993년은 마침 우리문중의 상징적 인물인 文貞公의 탄신 70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이를 계기로 유적비 건립과 회관 마련을 위한 기금을 조성코자 추진 계획서를 만들어 제의한바 있으나 저의 불민한 탓으로 호응을 얻지 못해 한때 실망을 안겨준바 있습니다. 한편 이와같은 결과는 뿌리나 위선을 위한 투자 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잠재 의식과 大護軍公 (7世) 부터 세거하고 文貞公 (8世)이 탄생한 槐山을 마치 괴산에 있는 일부 宗派만의 世居地 인양 뿌리에 대하여 일부 잘못된 사고에도 기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1993년 3월 제가 大宗會長的 증책을 맡은 이래 宗報를 창간해서 "淳昌趙氏의 뿌리"를 편찬이에 宗報에 연재하여 일가 집집마다 보내 드리는 한편 기금 적립을 위해 회비 징수제도를 시행하는등 初志를 一貫코자 노력하여 왔으나 유적비 건립 문제만은 종중의 분위기와 작년 3대에 걸친 선조 이장비 염출의 어려움을 겪은바 있는 괴산 종친회 실정으로 보아 감히 재론의 여지가 없이 유보하고 있던중 1994년 12월 중순 어느날 수년전 부터 부탁해온 단양산 자연석을 채석과 반출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 구해 놓았다는 괴산 행정과 孝善으로 부터의 연락을 받고 즉시 달려가 본즉 과연 오랫동안 찾던 훌륭한 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으니 다름아니라 이들을 본 괴산 유지들이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생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장 즉석에서 단호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유적비 건립의 꿈은 영원히 물거품이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深思熟考 끝에 이번이 千載一遇의 기회로 알고 結者解之의 심정에서 처음부터의 뜻을 임기중 모두 마무리 짓고 후회도 미련도 없이 뒤안길로 사라지려는 중경에서 소오경비일체와 모든 잘잘못의 책임을 홀로 감수하고리도 단속 건립 할것을 결심, 즉각 착수하기에 이른 것 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착작 진행 하던중 이사실은 괴산 종친회에 알려지고 친만다행으로 仲漢과 昌載 종친들이 앞장서서 괴산종친회 주체로 건립하기를 자청해오기에 이르렀으며 이어서 대의원 회의의 추진을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하니 더 뜻있고 더 훌륭한비를 오늘날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유적한 좌대 위에 氏族略史, 推進委員名單, 系派宗孫名單, 協贊者名單 등이 새긴 비신이 서고 그위에 상관이 자리하며 그 상단에 주제가 음각된 가로 3m 세로 2.6m의 단양산 자연석이 웅장하게 우뚝 서 있을 높이 5m가 넘는 "淳昌趙氏世居之鄉碑"는 우리의 뿌리를 반석위에 다지고 후손들에게는 긍지를 심어주는 영원한 기념물이 될것이며 이 앞길을 오고가는 세인에게 우리 뿌리를 인식시키는 큰 역할을 하는데 손색이 없을것으로 확신하는 바 입니다.

# 淳昌趙氏의 뿌리

대중회 회장 趙德善

## ④ 역대주요인물 (조선조)

### ①9 孝宗의 師傅를 지내고 6권의 문집을 떠낸 18世 趙壽恒 (1599~1636)

자는 士久요 호는 一閑齋이다. 형제 (형 壽益)가 다같이 벼슬길에 나가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뜻에서 陽陽, 雲岩, 西崖 舊業 (柳成龍이 세운 정자)에서 학문에 전념하였다.

인조11년 (1633) 조정에서 초야에 숨어있는 이름난 선비를 등용하기에 이르러 여기에 뽑혀 鳳林大君 (孝宗)이 잡지에 있을때 師傅로 발탁되었으나 나가지 아니하였다.

인조12년 英陵參奉를 지내고 또다시 大君師傅로 발탁되어 주로 옛 성인의 말씀을 인용해서 강론했었다.

유교로는 求益錄, 進修錄, 心經釋疑, 近思錄, 註解太極, 陰陽先後天河洛圖 등이 있다.

참고 1. 여주 (漢의 후손), 예천, 상주파의 직조로서 29세 申 丙, 雙 향렬기준 11대 조고이다.

#### 2. 후학 慶千會의 찬양詩

公議千年, 終不遂, 已知心學, 繼朱程

(一閑齋선생에 관하여 논하러면 천년을 해도 끝이 없고 그의 뒤은 학문은 朱子나 程子를 계승하리라)

### ②0 鎭川縣監을 지내고 淸州에 처음 자리 잡은 14世 趙伸 (1611-1673)

자는 大伊이며 음사로 鎭川縣監을 지내고 치적이 인정되어 判決事에 증직되었다.

벼슬을 떠난후에는 땅리에 뜻이없어 淸州, 梧村으로 피거하였으며 순창조씨가 청주에 산것이 이로부터 시작이다.

참고: 청주파의 직조로서 29세은 "柱"향렬 기준 15대 조고이다.

### ②1 효성과 우애의 본보기로서 平澤에 처음 자리잡은 19世 趙一韓 (1621~1701)

자는 器萬이요 생부는 輝奎이다. 折衝將軍 龍驤衛副護軍을 경력하고 남다른 효성과 우애가 입금까지 소문이 들러 수작으로 通政大夫 左丞 겸 經筵參贊官이 증직되었다.

인조12년 (1634) 공께서 홀로 집에 있는데 불이 났다. 14세 어린 소년의 몸으로 제일 먼저 사당으로 가서 신주를 모셔오니 온갖 귀한 물건은 모두 소실하였으나 신주만은 온전하

게 모셔어 승조정신을 행동으로 보였다. 인조14년 (1636) 자호란이 일어나자 팔순이 가까운 조모를 지극한 효성으로 험난한 먼길을 편안하게 모시고 생부도 및 양부모에게 있는 효도를 다하여 효의 모범을 보였으며 효종6년 (1655) 척숙 迂齊 李相國이 공에게 벼슬을 권하였으나 빈곤으로 봉양이 어려운 형으로 하여금 목을 취하도록 양보하였으니 형제간 우애의 으뜸이며 숙종15년 (1689) 왕비 閔氏가 궁전에서 쫓겨난 후 (남해에 장희빈이 왕비됨)부터는 기약을 멀리하고 주식이 다스려한 자리에선 나가지 아니하였으니 예로부터 "충신은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라는 옛말을 입증하였다.

참고: 평택 (一韓의 후손) 서산파의 직조로서 29세은 "柱"향렬기준 10대 조고이다.

### ②2 "아버지 늙으셨으니 봉양할 날이 없다" 라고 벼슬을 사양한 19世 趙溥 (1622~1705)

자는 巨源이며 인조24년 (1646) 司馬試에 급제 하였다. 현종3년 (1662) 英陵參奉와 현종11년 (1670) 金泉察訪을 제수하였으나 "아버지 늙으셨으니 봉양할 날이 없다" 라고 모두 사양하였다.

현종15년 (1674) 아버지상을 당하여 복제를 마친뒤 監役, 司謫寺主簿, 司憲府監察, 鎭安縣監, 木川縣監, 義城縣令, 高陽郡守 등을 두루 경력하였다.

숙종17년 (1691) 訓練都監을 거쳐 工曹佐郎, 司隸倉正 겸 宜惠廳郎을 지내고 숙종27년 (1701) 80수로 折衝將軍으로 승진하고 이듬해 倉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참고: 단양파의 직조로서 29세은 炳, 尚, 丙 향렬 기준 10대 조고이다.

### ②3 청렴결백을 좌우명으로 삼고 楊根 郡守를 지낸 20世 趙宇景 (1653~1713)

자는 景叔이며 숙종16년 (1690) 生員試에 급제하였다. 숙종19년 (1693) 踏源殿參奉를 거쳐 英陵參奉, 內膳寺奉事, 宗廟寺直長, 通禮院引儀, 司憲府監察를 경력하고 숙종24년 (1698)에 楊根郡守, 翊衛司禦 (1711)을 지냈다.

관직에서 물러나니 빈곤하여 좁쌀로 양곡을 삼았으며 비바람도 가리지 못하는 초막집을 후손에게 물려준 청백리이다.

참고: 단양파의 직조로서 29세은 炳, 尚, 丙 향렬 기준 9대 조고이다.

### ②4 명리를 멀리하고 오직 학문으로 名 錄에 오른 21世 趙靑一 (1706~1776)

자는 士志이요 처음 이름은 靑奎이고 호는 瓦山 또는 丹邱子이다.



리에 뜻이 없어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오직 도를 구하는 학문으로 조선명신록에 등재된 명신이다.

20세 젊은 나이에 天命圖解(천명을 논하는데 상편은 천지의 理와 氣(태극과 음양)를, 중편은 마음과 천성을, 하편은 인물을 각각 풀어씀)를 저술하였다.

“心如清水”(마음은 맑은 물과 같다)를 가문의 법도로 후손에게 전해왔다.

참고 1. 단양파의 직조로서 29세손 炳, 尚, 丙 항렬기준 8 대 조고이다.

2. 自作詩 # 1 杜(우)  
歌呼<sup>杜</sup>酒白, 漁釣<sup>杜</sup>蓴蒼 杜(우)  
(노래를 부르노라니 <sup>杜</sup>酒는 희고, 고기잡고 낚시질 하다보니 蓴는 짙어가네)

3. 自作詩 # 2  
山鹿老大白於雲 穩臥蒼岩度多曠  
我有茅蘆無俗客 夜來簷下可客君  
(산의 늙은 큰사슴은 구름보다 흰데 편안히 바위에 누워서 황혼을 지내네 나는 초가집은 있으나 손님 없으니 밤이되면 처마 밑에서 그대는 쉬어 갈 수 있 으리)

자는 允奭이다. 철종 2년(1851) 아버지의 병환이 위독하고 백악이 무효인고로 자신의 손가락을 찍어서 피를 흘려 입에 넣어 소생시켜 천수를 누리게 하였다.

철종 3년(1852)에는 자신이 득병하여 위독하니 부인 平澤林氏가 역시 양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마시게하니 孝子門에烈女가 탄생한 것이다.

고종 25년(1888) 孝로 인하여 通訓大夫 司憲府 持平이 증직되고 정문을 내리는 특전이 있었다.

참고: 송현파(趙用夏 후손) 29세손 “柱”항렬기준 6 대 조 고이다.

㉘ 치욕적인 한일합방으로 관직을 버린  
26世 趙東善 (1861~1925)

자는 德魯이며 호는 晚霞이다.

광무 10년(1906) 通津郡守에 이어서 다음해 金浦郡守를 역임했으나 1910년 일본의 강압으로 치욕적인 한일합방이 이루어지자 관직을 버리고 향리에서 망국의 한을 달래며 세상과 인연을 끊고 여생을 보냈다.

참고: 여주파(趙東善 후손) 29세손 丙, 變항렬기준 증조고 이다.

㉙ 족보를 최초로 발행하고 爲先事業에  
힘쓴 22世 趙重參 (1747생)

자는 景魯이며 생부는 趙昌益(행정)이다.

순조 2년(1802) 유사이래 처음으로 순창조씨의 壬戌譜를 발간하였다. 정조 16년(1792) 西山(10世 趙敬) 선영 개봉 축시에는 종전 160구를 마련하여 양주군 장흥면 가마동에는 13두력과 밭 하루가리를 위토로 봉하였다.

참고: 가주파 직조로서 29세손 “柱”항렬기준 7 대조고이다.

㉚ 孝로서 通政大夫 司憲府掌令에  
증직된 25世 趙福煥 (1762~1814)

자는 季綏이요 호는 瑞馨堂이다.

영조 18년(1742) 어머니의 병환이 위독한 와중에 의사는 “다른 약은 없고 제비고기만 있으면 회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나 때는 엄동설한이었다.

하염없이 하늘을 부르짖으면서 축수하였든바 홀연히 한마리의 제비가 눈을 맞으며 집으로 들어와 이로인해 어머니를 구하니 공의 호를 瑞馨堂(상선한 제비란 뜻)이라 하고 유럽에서 향친하여 孝로서 通訓大夫 司憲府掌令을 증직하였다.

고: 안촌파의 직조로서 29세손 “柱”항렬기준 8조가 된다.

㉛ 손가락을 찍어서 아버이를 구한 孝子  
23世 趙用夏 (1810~1859)

철충사제례, 유적비제막  
이사회개최 안내

1995년 4월 1일 (토) 11시에 충북 괴산 철충사 (괴산읍에서 차양으로 5분거리) 현장에서 철충사제례 및 유적비제막식과 순창조씨 대종회 이사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종친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 ※교통편 1. 지하철 2호선 강변역 하차,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괴산행 버스 수시발차
- 2. 청주시의 버스 터미널에서 괴산행 버스 수시발차

제 2 차 회비 수납 안내

1. 1994년과 1995년(2년분)의 회비를 이달부터 수납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비내용은 년회비(2년분) 10,000원과 주소득발행 및 우송비등 포함해서 10,000원 계 20,000원을 징수하오니 양지 바랍니다.
3. 제 1 차 회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4년분) 20,000원을 현재까지 미납하신분은 이번이 합산 해서 40,000원을 납부 바랍니다.

4. 생활근거가 없는 미혼자 및 아버지를 직접 모시고 있는  
아이들은 회비 면제 대상이 됩니다.
5. 송금시에는 반드시 이름앞에 파(派)를 명시해야 장부정  
리가 가능합니다. (동명이인이 많아서 파를 명시하지 않  
으면 확인할수 없음)  
따라서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송금전표를 쓸때 송금자  
명의란에 이름만 쓰지 말고 꼭 파(派)를 이름 앞에 같이  
기입하여 주십시오.

“예” 행정과 덕선

송금구좌 우체국 : 011775-0046769-11

국민은행 : 025-01-0315-181 조덕선

6. 대총회 회관 마련을 위한 기금조성에 뜻을 같이  
하시는분은 심시일반으로 적극협조하여 우리의  
숙원이 하루속히 성취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4” 재정 결산보고

#### 1. 총괄표

시일	구분	수입	지출	잔금	이월금	비고
93. 2. 28					19,114,147	종보1호참조
93. 3. 1~94. 2. 28		20,004,475	5,899,960	14,104,515	33,218,662	종보1,4호참조
94. 3. 1~95. 2. 28		7,638,880	2,567,552	5,071,328	38,289,990	

※현금 3천만원은 한국투자신탁에 정기예금(95. 5. 9 만기) 하였음.

#### 2. 수입과 지출 명세표 (94. 3. 1 - 95. 2. 28)

일시	수입지출명세	수입	지출	잔고	비고
94. 4. 30	이자(자동차보험)	2,260,000			
6. 1	회비및찬조금 94. 3. 1~94. 5. 30	565,000			종보5호참조
〃	문헌록대금(괴산종친회장)	600,000			
9. 1	회비 94. 6. 1~94. 8. 31	205,000			종보6호참조
〃	족보대금	300,000			
12. 1	회비 및 찬조금 94. 9. 1~94. 11. 30	1,715,000			종보7호참조
95. 3. 1	회비 94. 12. 1~95. 2. 28	1,250,000			종보8호참조
〃	이자(투자신탁)	743,880			
94. 3. 16	상가 조화	100,000			
3. 24	종보 제4호 인쇄 및 발송비		300,000		
3. 30	족보 우송료		37,552		
6. 22	종보 제5호 인쇄 및 발송비		250,000		
9. 16	종보 제6호 〃 〃		330,000		
11. 3	차량임대료(괴산시제)		100,000		
11. 13	경사 화환		100,000		
12. 22	종보 제7호 인쇄 및 발송비		350,000		
95. 2. 6	유적비건립보조		1,000,000		
	합 계	7,638,880	2,567,552	5,071,328	

#### 회비를·보내주신 종친 (94. 12. 1-95. 2. 28)

평택과 : 병순(40,000) 동기, 영기, 왕기, 병백,  
용목, 용화, 병창,

지곡과 : 병근

가주과 : 연주, 태주, 병하, 영식

지평과 : 병욱(50,000) 병택(50,000)

이안과 : 구식

탑동과 : 유식, 영식, 한주, 홍식(40,000),  
태홍(30,000)

팔송과 : 병욱, 증식(80,000)

청주과 : 응식, 경석, 태린

소암과 : 철주, 태식(30,000) 병식(30,000)

품곡과 : 태호, 태형, 원기

삼고과 : 춘식(30,000) 현식(30,000) 만식(30,000) 변식  
(30,000) 응주(30,000) 성주(30,000) 현득(30,000)  
현백(30,000) 현수(30,000)

※과불명자 : 현기(94. 12. 16 국민은행) 병철(94. 12. 21  
우체국)

현식(95. 1. 5 우체국) 영훈(95. 2. 7 우체국)

※이름불명자 : 삼고과 조병? (94. 12. 21 우체국 50,000원)

46000  
계 1,250,000원